NH투자증권

NH Morning Meeting Brief

산업/기업분석

코스맥스 (Buy유지/TP:170,000원상향)	광저우 법인 및 JV 공장 탐방 후기	정지윤
한화오션 (Buy유지/TP:41,000원상향)	특수선 확장 가능성 반영, 목표주가 상향	정연승
삼성물산 (Buy유지/TP:230,000원유지)	사업포트폴리오 효과	김동양
LG이노텍 (Hold유지/TP:230,000원유지)	우려보다 양호한 실적	이규하
SNT모티브 (Hold유지/TP:50,000원유지)	친환경 모터 신규수주 확보 필요	조수홍
제이알글로벌리츠 (Buy유지/TP:4,700원유지)	단기 접근 가능	이은상
한솔아이원스 (Not Rated)	2024년부터 가시화되는 New Thing에 주목	손세훈
에이치피오 (Not Rated)	5월은 '아른'의 달	심의섭

해외주식

NH 해외주식	5월 유망 종목	변종만/한위/임지용/조철군/김채윤/고민성
UPS/Spot Comment	배송 물량 감소세 지속	변종만
텍사스인스트루먼트 (TXN.US)	바닥을 다지는 시기	류영호
Seagate (STX.US)	신제품과 AI 효과 기대	류영호
니덱 (6594.JP)	저점 매수 타이밍	김채윤
인페이즈 에너지/Spot Comment	재고조정은 2분기가 마지막	정연승
비자/Spot Comment	수수료율 인하 이슈에도 연간 가이던스 유지	윤유동

NH Morning Meeting Brief는 당사 Research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상 투자의견이 제시된 기업 중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NH투자증권은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산업/기업분석

코스맥스 (192820.KS/Buy유지/TP:170,000원상향/CP:130,600원)

정지윤 (02-768-7705)

광저우 법인 및 JV 공장 탐방 후기

원문보기

4/22~24 당사는 코스맥스 광저우 법인 및 Yatsen JV 신공장 탐방 참석. 1분기 코스맥스 중국 법인은 본토 화장품 시장 성장률 대비 아웃퍼폼하며 순항 중. 전 법인 성장세 감안, 업종 내 Top-pick 관점 유지

- **중국 법인: 2024년 재도약의 원년**
  - 당사는 2024년 코스맥스 중국 법인 매출액 6,466억원(+18% y-y) 추정. 1분기 중 Yatsen JV 법인 연결 편입 시, JV 공장의 연간 타깃 매출액 500억원 감안 중국 법인 매출액은 6,800억원까지 내다볼 수 있을 전망. 코스맥스는 2004년 중국 진출, 2005년 상해 법인 매출액 발생 이후 19년간 CAGR +50% 성장 전력이 있음. 상해와 광저우 법인은 각각 주력 고객사 영업망 구축, 전략 제품 매출 비중 상승(상해 2023: 56% → 2024E: 66%, 광저우 2024E: 66%), R&D 강화(2026년 9월 코스맥스 차이나 연구소 완공 예정), 고마진 OBM(Original Brand Manufacturing) 매출 확대를 통해 중장기 마진 상승 기대

- **Yatsen JV: Mass 브랜드 다변화와 R&D 접목**
  - Yatsen Holdings(YSG.US)는 NYSE 상장 중국 화장품 브랜드 기업. 2016년 설립하여 2017년 색조 브랜드 Perfect Diary 론칭 이후, Little Ondine, Abby's Choice, Galénic, DR.WU, Eve Lom, Pink Bear, EANTiM 8개 브랜드를 보유. 최근 2년간 실적 부진 이어졌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코스맥스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제품 개발 및 생산까지 시너지 창출 기대. Yatsen-코스맥스 공동 개발 및 판매한 바이오립 에센스 제품은 2023년 9월 론칭, 3개월만에 판매 수량 100만개 이상 기록. Yatsen CEO 역시 과거 대비 저속 성장하는 중국 화장품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R&D 경쟁력 강화, Mass 브랜드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 아직 중국 브랜드의 해외 진출은 초입기로 중장기 업사이드 여력 존재

- **중국 저속 성장 지속되나, 코스맥스 아웃퍼폼 예상**
  - 투자의견 Buy 유지하며, 목표주가 17만원으로 상향. Target PER 18배 유지하며, 밸류에이션 산정 시점을 12M Fwd로 변경. 실적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연결 편입 예정인 JV 법인의 연간 목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00억원, 손익분기점 수준임을 감안 시 2024E/2025F 이익 추정치 변동폭은 미미. 다만, 법인별 적자폭 축소와 더불어 턴어라운드 가시성 높아지고 있으며, 1분기 JV 법인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상해(+17% y-y), 광저우(+27% y-y) 매출 성장률은 동기간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률(+3% y-y)을 큰 폭 상회할 것인 바, Top-pick 관점 유지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코스맥스'의 기업설명회에 동사의 비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한화오션 (042660.KS/Buy유지/TP:41,000원상향/CP:34,450원)

정연승 (02-768-7882)

특수선 확장 가능성 반영, 목표주가 상향

원문보기

1분기 실적은 환율 호조로 수익성 예상치 상회. 본업인 상선 부문 수익성 개선 지속과 더불어 1) 해외 기업 인수, 2) 미국 군함 MRO 사업 기회를 반영하여, 밸류에이션 상향. 이에 목표주가 41,000원으로 상향

- **특수선(군함) 사업부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밸류에이션 할증**
  - 목표주가를 기존 33,000원에서 41,000원으로 상향. 목표주가는 26년 예상 BPS (19,831원)에 지속가능 ROE(25~27년 평균 ROE) 14.5%를 감안한 Target PBR 2.4배를 적용, 이를 현재가치화(자본비용 8.2%, 베타 0.79, 무위험이자율 3.5%, 영구성장률 2.0% 적용)하여 산출. 특수선(군함) 관련 사업 확장 가능성(해외 기업 M&A, 잠수함 수출, 미국 군함 유지보수(MRO) 사업 확장)을 감안하여, 기존 Target PBR에서 20% 밸류에이션 할증 (원문 6 page 참고)
  - 현재 기준으로 LNG선 12척, 탱커 2척 등을 포함하여 34억달러 수주, 24년 예상 수주금액은 77억달러 예상. 하반기 Q-MAX급 LNG선 및 탱커 수주 예상
  - 미국의 중국 조선소 제재에 따른 반사 수혜는 제한적으로 판단되나, 국내 조선사의 경우, 특수선 관련 사업 확장은 가시성 높음. 하반기 미국 군함 유지보수를 시작으로 호주 오스탈 또는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 여부에 따라 특수선 외형 성장 레벨업 가능. 잠수함 수출은 25년 이후 장기 프로젝트 (원문 7 page 참고)

- **1분기 환율 호조로 수익성 측면에서 예상치 상회**
  -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28조원(+58.6% y-y), 영업이익 529억원(흑전 y-y, 영업이익률 2.3%) 기록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시장 컨센서스 상회. 상선 부문에서 조업 단가 상승 등의 일회성 비용 180억원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으로 인해 350억원 이익 증가 효과 발생. 2분기까지 저선가 컨테이너 매출 비중이 높으나, 하반기 LNG선 매출 비중 증가, 건조 물량이 증가하여, 수익성 개선 본격화 전망

한화오션 1분기 실적 Review (K-IFRS 연결) (단위: 십억원, %)

	1Q23	2Q23	3Q23	4Q23	1Q24P					2Q24E
					발표치	y-y	q-q	당사추정	컨센서스	
매출액	1,440	1,821	1,917	2,231	2,284	58.6	2.4	1,440	2,215	2,439
영업이익	-63	-159	74	-49	53	흑전	흑전	-63	15	60
영업이익률	*-4.4*	*-8.7*	*3.9*	*-2.2*	*2.3*			*-4.4*	*0.7*	*2.5*
세전이익	-120	-237	232	9	54	흑전	504.5	-1	5	53
(지배)순이익	-120	-237	232	286	51	흑전	-82.2	-6	0	50

자료: 한화오션,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삼성물산 (028260.KS/Buy유지/TP:230,000원유지/CP:150,400원)

김동양 (02-768-7444)

사업포트폴리오 효과

원문보기

건설 캡티브 강세와 바이오 고성장 통한 이익 체력 레벨업 및 이를 바탕으로 사업포트폴리오 강화 위한 투자 확대, 보유자사주 2026년까지 전량 소각 진행 중. 현재 주가는 NAV 대비 60% 할인

- **주주가치 제고 기대 유효**
  - 삼성물산은 캡티브 강세의 건설과 증설 진행 중인 바이오가 실적 이끄는 가운데, 기타 부문 이익체력 강화 진행 중. 바이오를 제외한 연결 영업이익 연간 2조원 수준으로 성장. 2024년에도 기존 핵심사업 고도화, 친환경 에너지/바이오 사업포트폴리오 강화 투자 확대 계획(1.0조원 이상)
  - 해외 행동주의펀드 주주제안(시티오브런던 등 4사/1.46%,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취득) 부결되었으나, 하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화 통해 주주가치 제고 기대. 제3기 3개년 주주환원정책(2023~2025년) 시행 중이며, 보유자사주 중 1/3 소각 확정 및 2026년까지 전량 소각 예정

- **1분기 실적 Review: 사업포트폴리오 효과로 시장 컨센서스 상회**
  - 삼성물산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0조7,958억원(+5% y-y), 영업이익 7,123억원(+11% y-y)으로 시장 컨센서스 상회. 영업환경 불확실성 확대에도 사업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에 따른 양호한 실적
  - 건설(영업이익 3,370억원, +15% y-y)은 전분기 일회성비용 반영 해소에 국내외 프로젝트 수행 안정성 유지 통해 수익성 개선. 하이테크 중심 신규 수주 2.4조원(신사업 0.1조원 포함)으로 연간 목표의 13% 달성. 식음(320억원, +10% y-y)도 식자재 유통 매출 확대로 실적 개선. 상사(850억원, -14% y-y)는 구리가격 상승 효과 및 미국 태양광 매각으로 수익성 유지, 패션(540억원, -5% y-y)도 소비둔화 우려에도 수입상품 호조와 온라인 강화로 실적 유지, 레저(-110억원, 적지 y-y)는 비수기임에도 파크 경쟁력 강화로 전년동기대비 적자폭 축소

삼성물산 1분기 실적 Review (K-IFRS 연결) (단위: 십억원, %)

	1Q23	2Q23	3Q23	4Q23	1Q24P					2Q24E
					발표치	y-y	q-q	당사추정	컨센서스	
매출액	10,239	10,586	10,971	10,100	10,796	5.4	6.9	10,363	10,357	11,596
영업이익	641	772	830	627	712	11.2	13.6	614	653	786
영업이익률	*6.3*	*7.3*	*7.6*	*6.2*	*6.6*			*5.9*	*6.3*	*6.8*
세전이익	918	923	987	722	1,063	15.9	47.3	1,021	915	944
(지배)순이익	677	583	570	388	728	7.5	87.8	618	599	566

자료: 삼성물산,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 당사는 '삼성물산' (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LG이노텍 (011070.KS/Hold유지/TP:230,000원유지/CP:209,000원)

이규하 (02-768-7248)

우려보다 양호한 실적

원문보기

- **상반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전망**
  - 동사는 우려보다 양호한 북미 고객사 판매량과 원/달러 환율에 힘입어 1분기 이익 서프라이즈 기록. 2분기도 원화 약세와 견조한 고객사 판매로 당사 추정치 상회하는 실적 달성할 것으로 예상. 관건은 하반기 고객사 신모델 판매 호조세 가능성과 점유율 유지 여부
  - LG이노텍 1분기 영업이익은 1,760억원(+21.1% y-y)을 기록하며 당사 추정치 및 컨센서스 상회. 판매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했던 것과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관련 이익이 견조한 실적의 주된 원인
  - 2분기에도 영업이익 668억원(+263.9% y-y)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1분기와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견조한 북미 고객사 수요와 양호한 환율이 실적 개선세를 견인. 기판부문도 1분기까지는 부진했으나 2분기부터는 고객사 IT 출하량 확대로 실적 개선세 달성할 전망

- **On-Device AI 등 고객사 신형 스마트폰에는 변화가 필요**
  - 우려보다 실적이 양호하다는 점은 주가에 긍정적. 다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미 고객사 하반기 신제품 판매 개선에 대한 인식이 생겨야 할 것. 지금까지는 제한적인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로 전년비 부진한 수요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
  - 하지만 2024년 6월에 예정되어 있는 북미 업체의 개발자 회의에서 On-Device AI 등 AI관련 새로운 기능들이 하반기 신모델에 탑재되는 경우 수요 전망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LG이노텍 1분기 실적 Review (K-IFRS 연결) (단위: 십억원, %)

	1Q23	2Q23	3Q23	4Q23	1Q24P					2Q24E
					발표치	y-y	q-q	당사추정	컨센서스	
매출액	4,376	3,907	4,764	7,559	4,334	-1.0	-42.7	4,151	4,490	4,479
영업이익	145.3	18.4	183.4	483.6	176.0	21.1	-63.6	91.7	138.1	66.8
영업이익률	*3.3*	*0.5*	*3.9*	*6.4*	*4.1*			*2.2*	*3.1*	*1.5*
세전이익	111.0	3.3	146.4	378.5	164.3	48.0	-56.6	88.1	107.2	65.6
(지배)순이익	83.3	2.1	129.1	350.7	138.5	66.3	-60.5	69.6	75.1	51.9

자료: LG이노텍,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 당사는 'LG이노텍' (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SNT모티브 (064960.KS/Hold유지/TP:50,000원유지/CP:45,850원)

조수홍 (02-768-7604)

친환경 모터 신규수주 확보 필요

원문보기

- **1분기 Review: 전동화 매출액 감소**
  - 1분기 매출액은 2,220억원(-22.3% y-y), 영업이익은 220억원(-18.1% y-y, 영업이익률 9.9%)으로 당사 예상치 및 시장 컨센서스 하회. 전동화 매출액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원화환율 상승에 따라 비교적 양호한 영업이익률 기록. 세전이익은 354억원(-10.8% y-y)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는데 분기말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이익 증가 영향으로 판단됨
  - 1분기 전동화 매출액은 587억원(-53.3% y-y)으로 큰 폭 감소. 지난해 말 생산 중단된 GM Bolt EV향 Drive unit(DU. 모터/감속기 등 전기차 구동모듈 패키지) 매출액(23년 DU 매출액은 1,436억원 있었음) 감소 영향. 1분기 현대차그룹 전동화 매출액(EV/HEV모터)도 586억원(vs 1Q23 796억원)으로 큰 폭 감소. HEV 모터 매출액은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EV 모터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작년 3분기 이후 주력차종은 봉고, 포터)했음
  - 엔진부품 고객다변화(수출 확대) 및 방산부문 계절성(하반기 매출 증가), 환율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매출액 감소에도 기존 전망치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다만, 친환경 모터 사업에서의 신규수주 확보를 통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이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위한 필요 조건

SNT모티브 1분기 실적 Review (K-IFRS 연결) (단위: 십억원, %)

	1Q23	2Q23	3Q23	4Q23	1Q24P					2Q24E
					발표치	y-y	q-q	당사추정	컨센서스	
매출액	285.8	289.0	276.7	284.8	222.0	-22.3	-22.0	263.1	257.6	257.6
영업이익	26.9	28.5	28.9	32.4	22.0	-18.1	-32.0	26.4	25.7	28.7
영업이익률	*9.4*	*9.9*	*10.4*	*11.4*	*9.9*			*10.0*	*10.0*	*11.2*
세전이익	39.7	35.7	38.4	0.0	35.4	-10.8	-	39.7	33.8	33.2
(지배)순이익	31.4	27.2	29.4	-1.1	26.9	-14.3	흑전	31.7	24.2	25.2

주: IFRS 연결기준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SNT모티브 실적 전망 (IFRS 연결) (단위: 십억원, 원, 배, %)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 수정 후	1,136	1,006	1,104	1,160
	- 수정 전		1,074	1,177	1,205
	- 변동률		-6.3	-6.1	-3.8
영업이익	- 수정 후	117	108	111	116
	- 수정 전		108	112	117
	- 변동률		0.3	-1.2	-0.4
EPS	- 수정 후	5,948	6,290	6,475	6,868
	- 수정 전		6,247	6,511	6,924
	- 변동률		0.7	-0.6	-0.8

주: EPS는 지배지분 기준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제이알글로벌리츠 (348950.KS/Buy유지/TP:4,700원유지/CP:4,050원)

이은상 (02-2229-6841)

단기 접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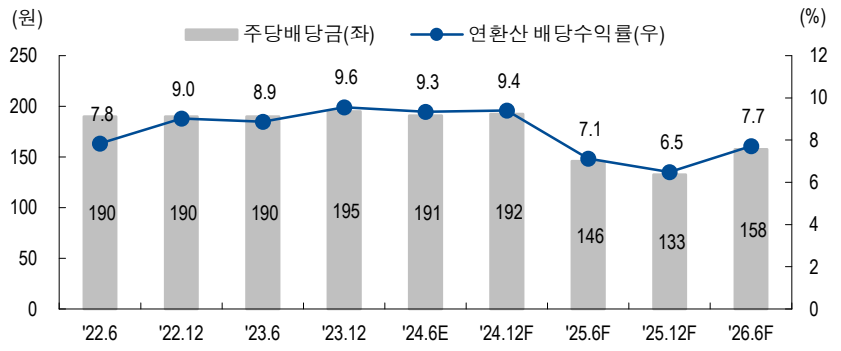
원문보기

리파이낸싱 이후 금융비용 상승 불가피하겠으나, 임대료 인상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 충분히 낮아진 주가 레벨로 배당수익률과 밸류에이션 모두 매력적인 구간. 금리 인하에 베팅한 단기 멀티플 플레이 가능한 종목

- **금융비용 상승 불가피하지만, 임대료 인상은 견조할 것**
  -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700원 유지. 목표주가를 유지하는 이유는 올해 재조달 금리 추정 상향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상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24년 12월 1조원의 유로화 차입금 만기가 도래. 예상 재조달 금리는 연말 유럽 기준금리 3%에 50bp를 가산한 수준인 3.5%로 직전 리포트에서 가정했던 2.5% 대비 100bp 상향
  - 한편 안정적인 공실 관리를 통해 '23년 연결 영업수익은 1,177억원(+13%y-y)을 기록. 동사의 파이낸스 타워는 올해 6월 벨기에 총선 이후 임차인인 벨기에 건물관리청과 임대료 연장 계약을 논의할 예정. 또한 '21년 리노베이션 진행해 인근 자산 대비 신축인 맨해튼 오피스는 신축 수요에 기반해 공실률 5% 미만을 유지 중. 안정적인 임대료 인상이 가능할 전망

- **주가 레벨 낮아져 단기 멀티플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
  - 투자의견을 유지하는 이유는 주가 레벨 낮아져 배당수익률과 밸류에이션 모두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 현 주가 기준 12MF 배당수익률은 10%로 커버리지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 또한 P/NAV는 0.6배에 불과.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은 제한적인 바 현재 수준의 괴리율은 과도하다 판단. 하반기 금리 인하에 베팅한 단기 멀티플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이라 판단

제이알글로벌리츠 예상 주당배당금 및 배당수익률



자료: 제이알글로벌리츠,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한솔아이원스 (114810.KQ/Not Rated/CP:12,180원)

손세훈 (02-768-7971)

2024년부터 가시화되는 New Thing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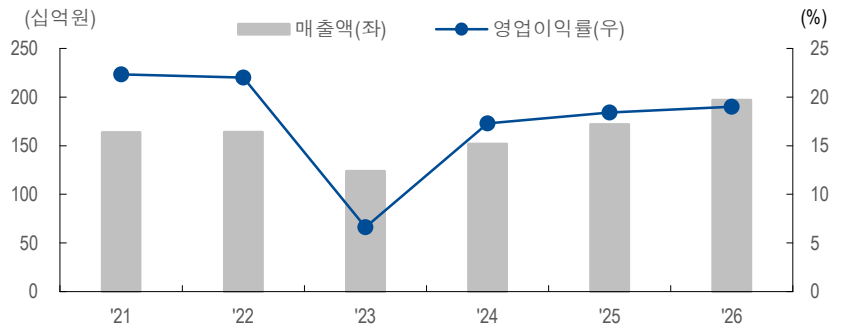
원문보기

한솔그룹 피인수 이전의 리스크는 청산. '24년 시작된 신규 고객사와의 거래, '25년 신규 아이템 출시가 투자포인트. 신규 고객사와 거래하는 국내 업체가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거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중요

- **New Customer, New Item**
  - 한솔아이원스 투자포인트는 신규 고객사와 신규 아이템임. 신규 고객사는 글로벌 노광장비 업체이며 동사는 거래업체로 밴더 등록되어 있음. 동사는 극자외선 노광장비 파츠 Re-Use 사업 영위 중이며, 첫 번째 파츠 출시가 올해 3월 시작되었음
  - 추가적으로 하반기 심자외선 장비 모듈 파츠를 출시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고객사를 통해 '24년 매출액 70억원 기록할 전망. 규모는 작지만 국내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동사가 유일하며, 거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중요
  - 신규 아이템은 쿼츠를 대체하는 소재로 장비사를 통해 3차 테스트 진행 중. 테스트 결과는 연말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25년부터 매출 발생할 것으로 기대

- **과거는 잊으세요**
  - 한솔아이원스는 한솔그룹 피인수 후 과거의 잔재를 청산해 이제 본연의 사업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됨. 세정코팅 사업과, 글로벌장비 업체인 A사에 납품하는 반도체 정밀 가공 부품 사업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 '23년 실적 악화
  - 다만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세에 힘입어, 2024년 매출액 1,517억원(+22.4% y-y), 영업이익 262억원(+219.4% y-y)으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 동사와 관련해서는 실적 회복과, 신규 고객사, 신규 아이템의 가시성에 주목

한솔아이원스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십억원, %)



자료: 한솔아이원스,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 본 자료는 당사 공식 Coverage 기업의 자료가 아니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식 투자의견,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에이치피오 (357230.KQ/Not Rated/CP:3,875원)

심의섭 (02-2229-6036)

5월은 '아른'의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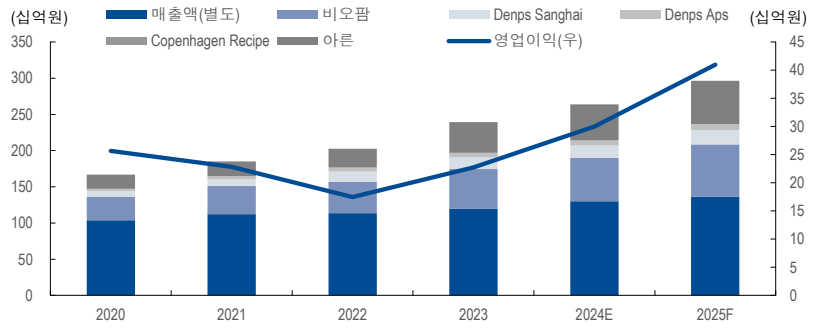
원문보기

견조한 본사 실적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회사 실적 고성장이 지속되며 2024년 연결 영업이익 기준 최대실적 경신 전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 관심이 필요한 시점

- **견조한 본업과 고성장하는 자회사**
  - 본업 Denps 건기식 사업은 시장 경쟁 심화로 낮은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판매 제품 세분화 및 홈쇼핑 비중 축소, 코스트코 입점을 통한 매출 확대, 온라인 매출 비중 확대를 지속하며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지속 중. 지난해 수입 유산균 판매 점유율 43.9% 기록하며 2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흐름 지속
  - 주요 자회사로 건기식 ODM 기업 '비오팜' 및 지난해 지오인포테크와 아프리콧스튜디오가 합병하여 출범한 '아른'의 고성장 전망. 비오팜은 CAPA 확대와 더불어 신규 제형 라인 확대를 계획 중에 있으며, 덴마크 생산 공장 또한 연내 가동 시작 전망. 아른 또한 마이크로 제품 판매 호조 및 유아동 어패럴 매출 고성장 지속 중

- **내실을 다진 지난 해, 성과로 보여줄 올해**
  - 동사는 지난해 사업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효율화를 진행. Denps 홈쇼핑 비중 축소 및 온라인 비중을 확대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마케팅비 지출을 줄이는 대신 제품 및 판매채널 세분화를 통해 매출 성장 시현. 비오팜 또한 신규 공동대표 선임과 더불어 덴마크 공장 인증을 진행하며 올해 성장 잠재력을 갖춤
  - 아른은 다양한 방면에서 기대할 점이 많은 상황. 2분기 마이크로 킥보드 계절적 성수기 효과에 더해 어패럴 부문에서도 카카오프렌즈 컬래버 상품 출시에 따른 인지도 확대 등으로 고성장 전망. 키즈 생활용품으로 신규 브랜드 확장 또한 계획 중에 있어 주니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기업으로 사업 순항 전망. 지배주주순이익 기준 2024E PER 7.6배로 저평가 매력 또한 보유

에이치피오 및 자회사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에이치피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 본 자료는 당사 공식 Coverage 기업의 자료가 아니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식 투자의견,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NH 해외주식

변종만/한위/임지용/조철군/김채윤/고민성 (02-768-7597)

5월 유망 종목

원문보기

- **미국: 조심스러운 실적 시즌, AI 투자 매력은 변함 없어**
  - 1분기 실적시즌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은 높아진 눈높이와 실적의 괴리를 좁히고, 기업 펀더멘털을 확인할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졌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은 속도의 문제이지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다. AI 인프라 구축과 수익화를 위한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기대가 높고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어닝 플레이보다는 실적 발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재는 볼륨 확장이 가능하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 및 고객군을 보유한 퀄리티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강한 경제가 경기 관련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 측면의 동력은 약해졌다. 5월 신규 투자 유망 종목으로 엔비디아 AI 칩의 유일한 생산업체이자 핵심 파트너사인 TSMC(TSM.US)와 AI 경쟁력 강화 조치와 구조조정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알파벳(GOOGL.US), 그리고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증가와 IRA 보조금 수혜가 기대되는 Constellation PA(CEG.US)를 편입한다.

- **중국: 순환매에 대비한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추천**
  - 정책 모멘텀이 주가에 대부분 반영된 가운데 단기 급등했던 성장주의 주가 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1분기 기업 실적은 대체로 부진했고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할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주식시장은 위안화 환율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에 따라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업종간 순환매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에너지와 금융,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등 국유기업 비중이 높은 섹터는 차익실현 욕구 증가로 인해 단기 주가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지만 주식시장 전반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져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한다. 5월 신규 유망 종목으로 중국 최대 금 및 구리 채굴 기업인 자금광업(601899.CN)을 제시한다.

- **일본: 정책 수혜주에 초점**
  - 일본의 FY2024 연간 실적발표 시즌이 도래했다. 주목할 포인트는 2023년도 기업 실적과 함께 공표되는 2024년도 연간 실적 가이던스다. 일본 기업들은 리오프닝(2022년 8월)에 따른 급격한 실적 회복 후 전년 대비 실적 성장률 둔화가 나타났으나(기저효과) 일본의 경기 회복 가시화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실적 확대를 가속하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고조, FRB의 금리 인하 타이밍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단 양호한 기업실적 가이던스가 제시된다면 일본 주식시장의 장기 조정장 진입은 예상하기 어렵다. 실적이 양호한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 스탠스를 권고한다. 5월 일본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 시즌을 맞아 정책 보유주 해소(자본 효율 개선) 및 주주 환원 강화 방침을 제시하는 Tokio Marine Hldg(8766.JP)을 신규 편입한다.

NH 해외주식 유망 종목

국가	투자 포인트	Ticker	기업명	섹터	시가총액 (조원)	주가 성과(%)			Valuation(배)	
						1M	3M	6M	PER	PBR
미국	ⒺⒷ	GOOGL.US	알파벳 A	커뮤니케이션	2,614.1	4.1	7.0	15.3	21.8	5.3
	ⒺⒷ	TSM.US	TSMC	정보기술	792.2	-7.5	14.8	42.1	19.1	4.7
	ⒺⒷ	CEG.US	Constellation PA	유틸리티	77.3	-2.2	56.3	63.4	24.1	4.6
중국	ⒺⒷⓂ	601899.CN	자금광업	소재	87.0	13.1	47.8	43.7	16.1	3.4
일본	ⒺⓅ	8766.JP	Tokio Marine Hldg	금융	83.6	1.2	22.2	43.6	13.6	1.9

주1: ⒺEarning momentum, ⒷBlue chip, ⓄEvent driven, ⓅPolicy beneficiary, ⓂMacro Play
주2: Valuation은 12개월 선행 기준
자료: FactSet,Refinitiv,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UPS/Spot Comment

변종만 (02-768-7597)

배송 물량 감소세 지속

원문보기

- **배송 물량 회복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관찰 필요**
  - 배송 물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점유율 회복과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로 나타나는 중. 배송 물량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UPS는 중소기업과 헬스케어 기업을 위한 고수익 배송에 집중. 헬스케어 물류의 2024년 1분기 매출은 26억달러였는데 2026년 연간 200억달러까지 늘린다는 계획. 한편, 기존 FedEx가 하고 있던 미국우편서비스(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와의 항공화물 운송 계약을 UPS가 체결. 이 계약을 위해 200여명의 항공기 조종사를 고용할 계획이나, 자체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용을 낮춘다는 계획으로 동사의 수익성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 1분기를 바닥으로 수익성 개선과 배송 물량 개선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FY1Q24 주당순이익은 컨센서스 상회, FY2024 가이던스 유지**
  - FY2024 1분기(1~3월) 실적으로 매출액 217.1억달러(-5.3% y-y), 영업이익 17.5억달러(-31.5% y-y), EPS는 1.43달러(-35.0% y-y) 발표.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를 0.6% 하회했고, EPS는 11.7% 상회. 매출액은 미국 내(-5.0% y-y)와 국제(-6.3% y-y), 공급망 관리 서비스(Supply Chain Solution: -5.3% y-y)에서 모두 감소. 일평균 배송 물량은 전분기 대비 3.6% 감소했는데 미국 내 3.2%, 국제 5.8% 감소. 패키지 평균 단가는 0.1% 하락해 볼륨 감소가 매출 감소의 원인. 미국 내에서는 노조의 임금인상(+13.0% y-y)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과 비용 효율화, 최적화 등으로 운영비용이 0.8% 감소하는 등 전사적인 비용 절감 노력의 성과 나타나. FY2024 연간 가이던스는 매출액 920억~945억달러, 영업이익률 10.0%~10.6%를 유지했고,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 20~30% 감소를 전망

UPS FY2024 1분기 실적 Review (단위: 백만달러, 달러, %)

	1Q23	2Q23	3Q23	4Q23	1Q24P				2Q24E
					발표치	y-y	q-q	컨센서스	컨센서스
매출액	22,925	22,055	21,061	24,917	21,706	-5.3	-12.9	21,837	22,316
영업이익	2,552	2,919	1,615	2,787	1,747	-31.5	-37.3	1,662	2,324
영업이익률	*11.1*	*13.2*	*7.7*	*11.2*	*8.0*	--	--	*7.3*	*10.4*
(지배)순이익	1,904	2,187	1,346	2,117	1,223	-35.8	-42.2	1,120	1,759
EPS	2.20	2.54	1.57	2.47	1.43	-35.0	-42.1	1.28	2.05

주: 12월 결산법인, 매출액은 GAAP, 나머지는 Non-GAAP 기준
자료: UPS, FactSe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텍사스인스트루먼트 (TXN.US/TP Consensus:172.1달러/CP:165.5달러)

류영호 (02-768-7199)

바닥을 다지는 시기

원문보기

동사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Industrial/Automotive 부문의 부진으로 당분간 실적 모멘텀 제한적. 수요 부진 속 200일이 넘는 재고 일수와 의도적인 가동률 축소 및 신규 공장 투자는 여전히 부담

- **시장의 우려보다는 양호한 실적**
  - 1분기 매출액은 36.6억달러(-16.4% y-y, -10.2% q-q)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였으나 2022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y-y 역성장 기록. 각 산업별로 살펴보면 Personal Electronics와 Enterprise 부문은 q-q 기준 각각 -15%, Industrial과 Automotive가 각각 -9%, -5% 기록. Automotive의 역성장 폭이 시장 우려 대비 제한적이었던 부분은 긍정적.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부분은 Communication 부분으로 -25% q-q, -50% y-y. 중국의 공격적인 CAPA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
  - 2분기 가이던스는 매출액 36.5억~39.5억달러로 컨센서스 상회. 2분기가 통상적인 성수기이기도 하지만 최근 제시한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을 지속적으로 하회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긍정적. 여전히 높은 재고와 가동률은 우려사항이나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다 판단

- **바닥을 찾기 어려웠던 시기는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 최근 TSMC의 시장 전망 하향과 함께 자동차/아날로그 반도체의 투자심리가 더욱 악화. 일부 특수 반도체를 제외한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부정적이나 최악의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 지난 12개월 동안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동사의 주가는 제한적인 움직임. 최악의 시기가 지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으로 저점 매수는 유효. 하지만 향후 200일이 넘는 재고 일수와 가동률 확대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는 상황.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단기 모멘텀이 부재한만큼 보수적인 입장 유지

텍사스인스트루먼트 FY2024 1분기 실적 Review (단위: 백만 달러, 달러, %)

	1Q23	2Q23	3Q23	4Q23	1Q24P				2Q24E
					발표치	y-y	q-q	컨센서스	컨센서스
매출액	4,379	4,531	4,532	4,077	3,661	-16.4	-10.2	3,613	3,743
영업이익	1,934	1,972	1,892	1,533	1,286	-33.5	-16.1	1,129	1,212
영업이익률	*44.2*	*43.5*	*41.7*	*37.6*	*35.1*	-	-	*31.2*	*32.4*
(지배)순이익	1,708	1,722	1,709	1,371	1,105	-35.3	-19.4	986	1,065
EPS	1.85	1.87	1.85	1.49	1.20	-35.1	-19.5	1.07	1.15

주: 12월 결산법인, GAAP 기준
자료: GAAP, FactSe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Seagate (STX.US/TP Consensus:94.8달러/CP:86.5달러)

류영호 (02-768-7199)

신제품과 AI 효과 기대

원문보기

AI 수혜와 전방 산업회복.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이 어느정도 마무리되었으며 대용량 신제품 출하와 향후 HAMR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실적 개선 기대

- **예상대로 긍정적인 실적**
  - FY2024 3분기 매출액은 16.6억달러 (+6.4% q-q, -11.0% y-y)를 기록. FY4Q23을 저점으로 대용량 제품의 비중 확대와 미국과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의 니어라인 구매 지출 확대에 따라 실적 개선. 클라우드 매출은 지난 2분기 연속 두 자릿수 q-q 성장. Enterprise OEM의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 개선. 수익성 개선은 가격 인상과 긍정적인 제품믹스 때문. 3분기 출하 용량은 99.1EB (+4% q-q)로 150EB가 넘었던 팬데믹 기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상승 중. 대용량 제품(Mass Capacity)의 평균 용량은 12.5TB(+5% q-q)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 FY2024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는 매출액 17억~20억달러로 시장 예상 상회. 클라우드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오랜 기간동안 진행된 클라우드 업체들 재고 소진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연말까지 니어라인 수요 견조할 것으로 기대. Enterprise OEM의 경우 일반 서버와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음. 최근 Enternprise OEM 수요 개선은 일반 서버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전방 산업 회복과 AI가 가져온 기회**
  - Seagate는 최근 웨스턴 디지털에 이어 HDD 가격인상에 동참. 최근 클라우드 업체들이 재고소진과 AI에 대응하기 위해 대용량 스토리지 구매를 확대하였기 때문. 동사는 향후 1)수요강세에 따른 가격 상승, 2) 가동률 상승에 따른 비용 감소 3) 하반기부터 인증이 완료된 24TB CMR/28TB SMR의 대량생산과 내년 HAMR 등으로 P와 Q의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긍정적인 관점 유지

Seagate FY2024 3분기 실적 Review (단위: 백만달러, 달러, %)

	3Q23	4Q23	1Q24	2Q24	3Q24P				4Q24E
					발표치	y-y	q-q	컨센서스	컨센서스
매출액	1,860	1,602	1,454	1,555	1,655	-11.0	6.4	1,677	1,822
영업이익	-315	31	-129	124	143	흑전	15.3	165	227
영업이익률	*-16.9*	*1.9*	*-8.9*	*8.0*	*8.6*	-	-	*9.8*	*12.3*
(지배)순이익	-433	-92	-184	-19	25	흑전	흑전	58	128
EPS	-2.1	-0.4	-0.9	-0.09	0.12	흑전	흑전	0.10	0.43

주: 6월 결산법인, GAAP 기준
자료: GAAP, FactSe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니덱 (6594.JP/TP Consensus:7,627엔/CP:6,762엔)

김채윤 (02-768-7725)

저점 매수 타이밍

원문보기

차재 사업 구조개혁 완료하며 향후 'E-Axle' 사업에서 중국향 매출 비중 축소 전망. 향후 상향 수정이 기대되는 보수적인 연간 가이던스

- **FY2024 Review: 산업용 모터 교체 수요 확대가 실적을 견인**
  - FY2024 연간 매출액 2조3,482억엔(+5% y-y), 영업이익 1,631억엔(+63% y-y), 순이익 1,253억엔(+179% y-y). 중국 EV 시장 가격경쟁 심화 및 가전 수요 저하 등의 영향은 있었으나 1)정밀 소형 모터 사업부문의 모터 교체 수요 확대(특히 IT용)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센터용 모터(수냉 모듈) 증가(새로운 사업 기회 생성), 2)차재 사업부문 구조 개혁(4Q 영업이익 +598억엔 계상) 및 전략 재정비 실시, 3)철저한 고정비 절감과 원가 개선, 4)엔화 약세 수혜(매출액 +1,214억엔 y-y, 영업이익 +87억엔) 등을 바탕으로 실적 견인

- **FY2025 Preview: 차재사업 구조개혁 완료, 수익성 개선 기대**
  - FY2025 연간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액 2조4,000억엔(+2% y-y), 영업이익 2,300억엔(+41% y-y), 순이익 1,650억엔(+32% y-y). 특히 영업이익, 순이익은 3년만에 사상 최고치 전망(FY2022, 각각 1,703억엔, 1,357억엔). 연간 상정 환율 1달러=145엔. 연간 배당 80엔(+5엔 y-y) 제시. 주력의 산업용 모터 매출은 미국과 유럽에서 인프라 갱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지속 성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차재 사업은 중국의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비중 축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수익성 우선, 채산 개선). 동사는 유럽향 E-Axle 본격 양산 개시 및 생성형 AI 관련 사업(데이터센터용 수냉 모듈) 생산 능력 증강을 언급. 중국 경기 침체 및 글로벌 EV 모터 가격경쟁 심화 지속 등의 리스크 요인은 상존하나 1)구조개혁 완료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ROIC 15% 목표), 2)추가 M&A 실시에 따른 경비 절감 효과 확대, 3)엔화 약세 수혜, 4)저렴한 밸류에이션 등을 바탕으로 주가는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

니덱 FY2024 4분기 실적 Review (단위: 십억엔, %)

	4Q23	1Q24	2Q24	3Q24	4Q24P				1Q25E
					발표치	y-y	q-q	컨센서스	컨센서스
매출액	543	566	595	594	594	9.3	-0.1	579	603
영업이익	-24	60	56	54	-6	적지	적전	10	60
영업이익률	*-4.5*	*10.6*	*9.4*	*9.0*	*-1.0*	--	--	*1.8*	*10.0*
세전이익	-21	86	59	48	9	흑전	-80.9	14	61
(지배)순이익	-59	64	42	40	-20	적지	적전	-8	48

주: 3월 결산 기업
자료: 니덱, FactSet,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인페이즈 에너지/Spot Comment

정연승 (02-768-7882)

재고조정은 2분기가 마지막

원문보기

- **1분기에도 이어진 재고조정**
  - 인페이즈 에너지(Enphase Energy)는 글로벌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제조 및 종합 솔루션 기업. 2024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63억달러(-63.7% y-y, -13.0% q-q), 영업적자 0.29억달러 (적전 y-y, 적지 q-q, 영업이익률 -11.1%) 기록하여,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 기록. 기존 제시된 가이던스 범위에서 하단에 부합하는 수준
  - 2023년 4분기부터 유통시장 내 태양광용 인버터 재고 조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출하량을 줄이고 있음. 2024년 1분기에도 재고 조정. 출하량 조정을 통해 유통 시장 내 재고가 약 1.13억달러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 2분기에도 약 0.9억달러 규모의 출하량 조정을 통해, 연초 2억달러 규모였던 채널 재고의 정상화 목표. 3분기부터 출하량 회복으로 분기당 4.5억~5.0억달러 매출액 전망
  - 평균 판매단가가 4~5% 정도 하락하였으나, 고객 Mix 변화에 따른 가격 하락이며,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지는 않고 있음.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지역은 수요 회복이 더디나, 비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 3월부터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음. 유럽 내 프랑스, 독일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버터 판매량 증가. 단가와 수익성이 높은 인버터와 배터리가 결합된 제품 수요도 증가 추세. 미국 시장도 하반기부터 회복세 진입 예상

- **전기요금 상승 영향으로 가정용 태양광 수요도 점진적으로 회복 전망**
  -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수요 둔화와 밸류에이션 하방 압력 영향으로 주가가 부진한 것이 사실. 다만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2024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금리가 낮아질 경우, 수요가 탄력적으로 회복 가능

인페이즈 에너지 FY2024 1분기 실적 Review (단위: 백만달러, %)

	1Q23	2Q23	3Q23	4Q23	1Q24P				2Q24E
					발표치	y-y	q-q	컨센서스	컨센서스
매출액	726.0	711.1	551.1	302.6	263.3	-63.7	-13.0	276.9	348.1
영업이익	167.7	170.3	118.0	-10.2	-29.1	적전	적지	45.6	80.1
영업이익률	*23.1*	*23.9*	*21.4*	*-3.4*	*-11.1*	-	-	*16.5*	*23.0*
(지배)순이익	146.9	157.2	114	20.9	-16.1	적전	적전	5.4	36.2
EPS	1.07	1.15	0.84	0.15	-0.12	적전	적전	0.05	0.28

주: 12월 결산법인, GAAP 기준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비자/Spot Comment

윤유동 (02-768-7563)

수수료율 인하 이슈에도 연간 가이던스 유지

원문보기

-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굳건한 결제금액**
  - 1분기 실적은 순영업수익 88억달러(+9.9% y-y), 순이익 47억달러(+9.5% y-y)로 컨센서스 부합. 총 결제금액 3.2조달러(+7% y-y), 거래건수 680억건(+11% y-y)으로 성장 지속. 여전히 해외여행 관련 수요가 높아 크로스보더 결제금액 +16%, 해외부문 결제수수료 +9% 상승. 미국 및 유럽 지역의 소비가 높았으며 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역성장
  - 영업비용 34억달러(+29.1% y-y)로 증가. 1) Pismo 인수 후 비자 인프라 시스템을 강화하였고 2) 소송 충당금 적립하였기 때문. 비자, 마스터카드는 20년에 걸친 소송 끝에 미국 소형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발표. 언론에서 이 금액은 약 30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향후 실적에서도 충당금 관련 비용 발생 가능성 높음
  - 다만 연간 가이던스로 제시한 순영업수익 낮은 두 자릿수 및 EPS 10%대 성장률 유지. 예상보다 아시아 지역 소비 회복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해외 결제량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특히 비자의 온라인 결제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이번 분기 주주환원액은 38억달러(+20.2% y-y)로 주주환원 의지도 재확인

비자 FY2024 1분기 실적 Review (단위: 백만달러, %)

	1Q23	2Q23	3Q23	4Q23	1Q24P				2Q24E 컨센서스
					발표치	y-y	q-q	컨센서스	
순영업수익	7,985	8,123	8,609	8,634	8,775	9.9	1.6	8,624	8,946
영업이익	5,336	5,024	5,550	5,954	5,354	0.3	-10.1	5,764	6,052
세전이익	5,278	5,146	5,636	6,042	5,513	4.5	-8.8	5,918	6,108
순이익	4,257	4,156	4,681	4,890	4,663	9.5	-4.6	4,933	4,898

주: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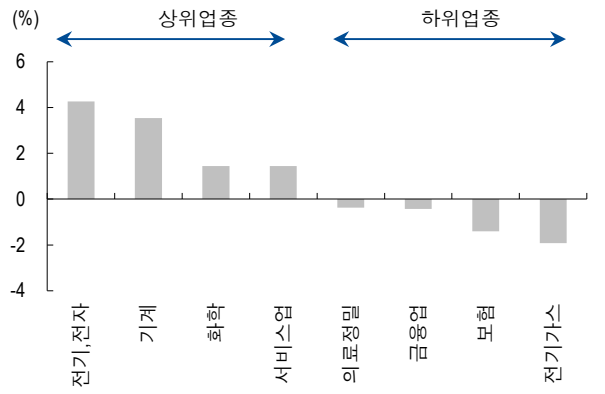
Domestic Market

Trading Summary		Index 24-Apr	23-Apr	22-Apr	19-Apr	18-Apr	Performance/Spread 1Day	1Week	1Month	1Year
거래소	주가지수(P,%)	2,675.75	2,623.02	2,629.44	2,591.86	2,634.70	2.01	3.54	-2.26	7.50
	거래량(백만주)	326	430	402	809	479	-105	-234	-211	-206
	거래대금(십억원)	10,228	9,948	11,021	14,045	10,571	279	-1,483	-1,321	116
코스닥	주가지수(P,%)	862.23	845.44	845.82	841.91	855.65	1.99	3.51	-5.63	2.80
	거래량(백만주)	958	887	899	1,101	957	71	-34	-4	-118
	거래대금(십억원)	7,930	7,393	8,014	9,021	7,774	537	-336	-1,917	-1,918
투자자별순매수(순매도)										
거래소	외국인(십억원)	489	-25	-750	-344	574	489	-55	4,387	21,120
	국내기관(십억원)	362	87	784	-667	25	362	590	-3,409	-4,324
	개인(십억원)	-866	204	-58	925	-605	-866	-401	-870	-17,549
코스닥	외국인(십억원)	183	-48	-75	-358	260	183	-39	-577	2,151
	국내기관(십억원)	73	-33	-31	109	63	73	181	-480	-4,740
	개인(십억원)	-244	87	118	249	-311	-244	-102	1,427	6,736

주: 투자자별순매수의 Performance/Spread는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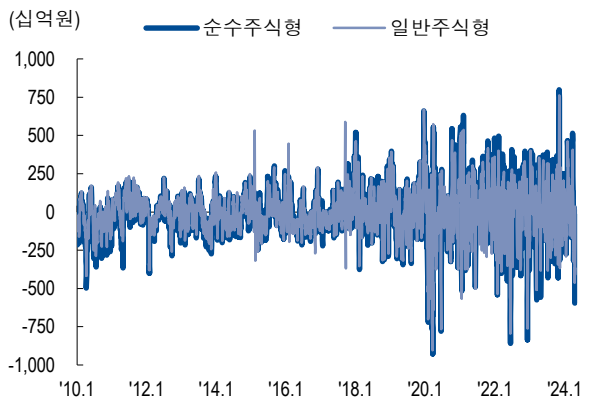
Market Indicators									
3년만기 국고채(%,%P)	3.51	3.49	3.51	3.47	3.43	0.02	0.03	0.22	0.24
3년만기 회사채(AA-)(%,%P)	4.00	3.99	4.02	3.98	3.96	0.01	0.00	0.09	-0.07
콜금리(%,%P)	3.55	3.53	3.53	3.51	3.52	0.02	0.07	0.07	0.04
시가총액(조원)	2,590	2,539	2,544	2,513	2,554	50.91	86.46	-73.07	228.02
원/달러 환율(원,%)	1,369.20	1,378.30	1,379.20	1,382.20	1,372.90	-0.66	-1.27	2.02	2.78
원/100엔 환율(원,%)	890.26	891.89	895.89	889.77	898.36	-0.18	-1.29	0.72	-10.41
증시주변자금									
고객예탁금(십억원)	-	55,865	56,580	55,475	55,060	-	596	604	2,094
미수금(십억원)	-	945	931	981	993	-	-20	-92	689
신용잔고(십억원)	-	18,915	18,913	18,936	19,055	-	-369	-302	-1,130
순수주식형수익증권(십억원)	-	108,522	108,522	108,339	108,843	-	-125	-2,985	12,466

Daily Sector Performance



자료: KRX

Domestic Equity Fund Flow



자료: AMAK, Zero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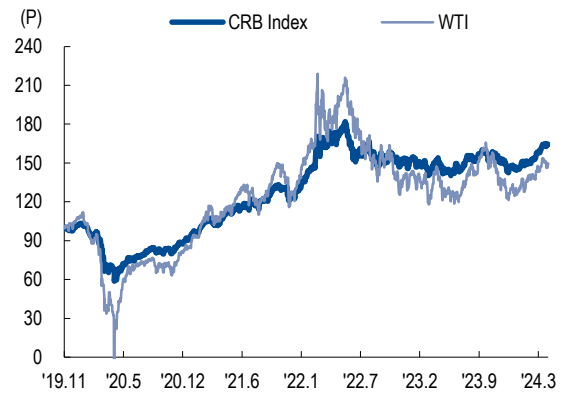
Global Market

해외주요증시		Index 24-Apr	23-Apr	22-Apr	19-Apr	18-Apr	Performance/Spread 1Day	1Week	1Month	1Year
미국	NASDAQ(P,%)	15,713	15,697	15,451	15,282	15,602	1.69	0.19	-4.36	30.15
	S&P500(P,%)	5,072	5,071	5,011	4,967	5,011	1.22	0.98	-3.11	22.70
	Dow Jones(P,%)	38,461	38,504	38,240	37,986	37,775	0.58	1.87	-2.57	13.76
유럽	영국(P,%)	8,040	8,045	8,024	7,896	7,877	0.21	2.45	1.38	1.60
	독일(P,%)	18,089	18,138	17,861	17,737	17,837	1.28	1.79	-0.64	13.90
아시아	일본(P,%)	38,460	37,552	37,439	37,068	38,080	2.73	1.31	-5.94	34.64
	대만(P,%)	20,132	19,599	19,411	19,527	20,301	3.71	-0.40	-0.48	29.02
	중국(P,%)	6,100	5,955	5,831	5,747	5,804	4.61	6.10	5.95	-9.82
	인도(P,%)	73,853	73,738	73,649	73,088	72,489	0.28	1.25	1.40	23.80
라틴	멕시코(P,%)	56,464	56,634	56,552	55,863	55,739	-0.16	1.89	-0.26	4.22
	브라질(P,%)	124,741	125,148	125,573	125,124	124,196	-0.66	0.46	-1.80	19.52
국제금리 및 환율										
금리	미국채 10년(%,%P)	4.64	4.60	4.61	4.62	4.63	0.03	0.05	0.44	1.07
	스프레드(10년-2년) (%,%P)	-0.29	-0.33	-0.36	-0.37	-0.35	0.08	0.06	0.11	0.32
환율	엔/달러(엔,%)	155.35	154.83	154.85	154.64	154.64	0.32	0.62	2.60	15.79
	달러/유로(달러,%)	1.07	1.07	1.07	1.07	1.06	0.41	0.24	-1.01	-2.61
국제 원자재 가격										
	CRB Index(P,%)	297	298	298	298	296	-0.34	0.90	3.96	9.71
	WTI ($/Barrel,%)	84	85	83	83	83	1.59	1.79	3.86	8.17
	Gold ($/Troy Ounce,%)	2,316	2,322	2,327	2,392	2,379	-0.48	-1.90	6.96	16.80
	구리($/Metric ton,%)	9,707	9,707	9,830	9,876	9,735	-1.25	1.29	9.47	10.37

Global Company Performance	1Week (%,%P) 해외	국내	Gap	1Month (%,%P) 해외	국내	Gap	PER (배) 해외	국내
Intel/삼성전자	-3.31	-0.38	-2.93	-18.96	-0.38	-18.58	89.23	39.28
Micron Technology/SK하이닉스	-3.91	0.62	-4.53	1.42	5.89	-4.46	-	-
Philips/LG전자	3.59	1.32	2.27	5.60	-7.24	12.84	-	23.65
NTT Docomo/SK텔레콤	0.00	1.59	-1.59	0.00	-3.95	3.95	12.59	10.19
Google/NAVER	2.69	2.28	0.41	6.15	-2.75	8.90	27.01	27.91
Toyota/현대차	0.58	8.14	-7.55	-6.56	3.70	-10.26	20.99	5.21
Nippon Steel/POSCO	1.72	6.74	-5.02	-7.30	-7.58	0.28	4.77	17.65
Exxon Mobil/SK이노베이션	2.04	0.00	2.04	6.66	0.00	6.66	13.54	38.60
Singapore Airlines/대한항공	5.31	2.98	2.33	2.02	-4.82	6.84	18.09	7.15
Mitsubishi Heavy/현대중공업	-2.09	15.23	-17.32	-0.04	2.78	-2.82	35.81	3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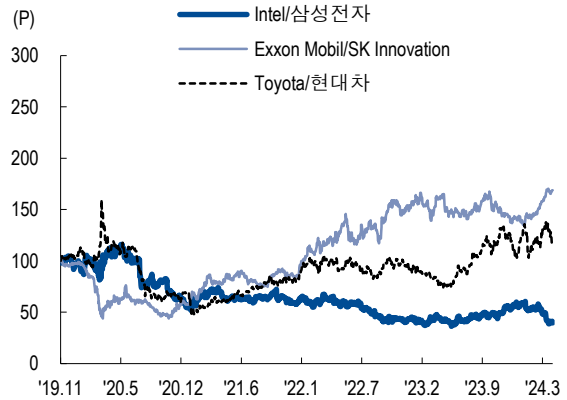
주: 해외=해외주식의 수익률, 국내=국내주식의 수익률, Gap=해외와 국내주식의 수익률의 차

Global Commodities Price Trend



자료: Bloomberg, Dramexchange

Global Company Relative Performance



자료: Bloomberg

〈종목 투자등급 (Stock Ratings)〉

-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Buy(15%초과), Hold(-15%~15%), Sell(-15%미만)로 구분
- 본 조사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